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훈민정음,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해석-

백 두 현

“관점은 생각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훈민정음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훈민정음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하려고 한다. 훈민정음에는 태생적으로 민주성, 과학성, 철학성이라는 세 가지 보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이 지닌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밝혔다.

세종이 지은 어제 서문에 밝혀져 있듯이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해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민주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조선 왕조에서 훈민정음의 태생적인 민주성은 국가 권력이 백성들을 통치하거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9세기 말기의 갑오개혁으로 훈민정음이 ‘국문’으로 승격되면서 민주성이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문으로 불가능한 대중 교육을 한글이 가능케 했다. 한글로 편찬된 교과서는 한국인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대중의 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조선의 인민을 근대적 시민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한글의 민주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세기에 성취된 한글 공동체의 형성은 한글이 지닌 민주성을 토대로 한 것이며, 이것이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다.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내재된 과학성은 초성과 중성의 음성학적 분석과 기본자를 만들어 가획과 합성을 한 방법론적 원리를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이 태생적으로 지닌 과학성이다. 훈민정음의 과학성은 이 문자를 독보적 존재로 만들었다. 훈민정음에 담긴 과학성이란 보편적 가치는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의 원리와 상통하는 것이다. 훈민정음에 내재된 과학성은 현대 과학의 총아인 컴퓨터와 똑똑이전화 등 디지털 매체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

훈민정음에 내재된 철학성의 핵심은 삼재론과 음양오행론이라는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삼재론은 천지(天地=자연)와 사람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음양오행론 역시 우주를 이루는 다섯 가지 근본 요소의 상호 결합과 조화가 만물 운행의 이치라고 보는 사상이다. 삼재론과 음양론은 조화로운 인간의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르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